

“Recognize and believe in the power of the Spirit in your lives!”

Pope Benedict XVI

World Youth Day 2008 in Sydney

“Tonight, I am praying for you and for young people throughout the world. Be inspired by the example of your Patrons! Accept into your hearts and minds the sevenfold gift of the Holy Spirit! Recognize and believe in the power of the Spirit in your lives.” said His Holiness Pope Benedict XVI at Holy Mass at the World Youth Day 2008.



World Youth Day 2008 was held in Sydney from Tuesday 15 to Sunday 20 July 2008, with the Papal Mass held on the Sunday. WYD08 attracted 223,000 registered pilgrims, including 110,000 from 170 nations making it the largest event ever hosted in Australia. An estimated 400,000 pilgrims attended Holy Mass celebrated by His Holiness Pope Benedict XVI on Sunday 20 July 2008. This is the largest single gathering of human beings at the one place in Australia's history

His Holiness Pope Benedict XVI at Holy Mass at the World Youth Day 2008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Acts 1:8) In every age, and in every language, the Church throughout the world continues to proclaim the marvels of God and to call all nations and peoples to faith, hope and new life in Christ.”

“이런 걸 사랑에 빠졌다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할까!”

나를 채우신 주님...울음과 웃음 범벅이된 달라스 성령 세미나

이 스테파노, 달라스 본당

며칠 전 출장을 떠나는 나를 보며, 나보다 1년 먼저 성령 안의 삶 세미나를 다녀왔던 아내가 "성령세미나는 다 좋은데, 너무 신령한 언어를 강조하시는거 같아. 마치 신령한 언어를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부족하거나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게 하신다니까."라고 했었다. 난 평소 생각대로, "너무 걱정하지 마. 성서에도 누구나 신령한 언어를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 하시잖아. 성령 칠은, 성령의 열매, 그걸 한꺼번에 모두 다 받는건 아니잖아. 사람마다 다른거지. 몰라? 견진 성사 받을 때 다 배우는 것들인데?"하며 아내에게 "아는 척을 했었다.

나의 "아는 척"은 대학 때로 거슬러 올라가 시작된 것 같다. 어려서 부터 성당에 엄마를 따라 다녔지만, 주일미사만 다니던 나를 본격적인 신앙 생활과 봉사의 길로 이끌어 주었던 것은 대학교 1학년 때 시작했던 주일학교 교사 생활이었다. 선배들과 신부님, 수

녀님과 성서공부, 주일 학교 교사 세미나, 교리 교육, 교회사 공부, 학생들과 함께 했던 캠프와 피정들... 준비하고, 가르치고, 활동하며, 참 많이 배웠고, 울었고, 우리 가운데서 어려울때 도와 주시는 주님도 나름 느꼈었다. 무엇보다도 그를 통해 나를 예수님과 예수님의 길을 좀 더 "알게" 되었던것 같고, 그 뒤로 어디에 가셔도 교리 지식과 성서 지식으로 나를 빠지지 않고, "아는 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언젠가 늦은 밤 주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렸었다. "예수님, 전 당신을 몰랐더라면 더 재미있게 세상을 즐기

달라스 성령 세미나

지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달라스 본당에서 김태선 빈첸시오 본당 신부의 지도로 KSC 봉사팀을 비롯, 잭슨빌, 올란도의 자원 봉사자들이 이끄는 성령 안의 삶 세미나가 개최됐다.

9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를 마친 후 김태선 본당 신부는 "교우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에 찬 모습에 하느님께 감사드릴다"고 말했다.

본당의 기도회 팀은 간증과 율동등 철저한 세미나 준비를 통해 전국 봉사자들과 함께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민 라파엘 기도회장은 세미나를 준비하는 동안, 기도회가 쇠신되고 활성화됨을 느꼈다며 이번 세미나에 감사했다. 세미나 후에는 기도회에 60여명이 참석하여 주님을 찬미했다.

KSC는 기도회 진행을 위한 기도회 봉사자 워크샵 세미나를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면서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지만, 당신을 알게 되고 나서 그럴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왜냐하면 당신의 삶이 저에게 감동을 주었고, 난 당신을 존경하게 되었으니까요. 당신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저에게 당신의 길을 보여 주세요. 하지만, 참 힘드네요, 쉽지가 않네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나에게 존경의 대상이었고, 나의 길이요, 진리이셨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끊임없이 솟아 오르는 생명의 물은 없었던 것 같다. 세상을 살아가며 언제나 존경하는 주님의 길을 따르려, 그분의 모습을 닮으려 노력했지만, 내 마음속은

다. 처음 분위기는 평생 경건한(?) 가톨릭 신자로 살아온 나에게 처음엔 좀 어색했다.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평소 뵈 때 근엄하시던 분들이, 어린아이같이 해맑게 웃으시며 박수치고, 울동하며 노래하는 모습에 웃음도 났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고, 나 역시 아이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느님께서 결정적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당신을 체험하게 해 주신 것은 면담과 기도를 통해서였다. 주님은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 상처받은 나의

주님은 내 옆에 앉아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러 주셨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상처와 목마름과 슬픔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점점 메말라가는 것을 느꼈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도, 기도를 해도, 생활 속에서 그분의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해도, 마음 한 구석에 허전함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님도 이렇게 외로우셨는지" 하며 나를 달랬다.

"피정 같은 거 한번 다녀 왔으면 좋겠어. 너무 외로워. 그리고 힘들어." 작년부터 아내에게 말했었다. 하지만 바쁜 직장 생활 속에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고, 올해 드디어 달라스 성당에서 하는 4 일간의 성령 안의 삶 세미나를 해외 출장 갔다 오는 길에 둘째 날 부터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 몇 번이나 출장 기간이 연기될 뻔 했던 것이 아슬아슬하게 해결되고, 드디어 목요일 밤, LA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금요일 오후에는 달라스로 돌아와서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새벽 2 시에 컨퍼런스 쿨을 마치고 나니, 밤 낮이 바뀌어서 잠은 안 오고, 아침 6 시 비행기를 위해 호텔에서 4 시쯤 나가야 하므로, 남은 2 시간동안 기도를 하기로 했다. 바쁜 출장 중에 못했던 성령께 드리는 9 일 기도를 하며, 세미나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신령한 기도가 안되면 대신 "아는 척"이라도 하기 위해 성서를 읽었다. 그러던 내 눈에 바오로 사도의 은사와 사랑에 관한 말씀이 들어왔고, 평소에 익히 알고 있던 이 구절의 말씀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 구석이 쨍하게 울려 오며 눈물이 북받쳐 흐르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 때, 나는 지식의 허영이 가득한 나에게 "사랑"이 없었으며, 그러므로 그동안 나는 요란한 징이요 소란한 쟁과리와 같았다는 것을 느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기로 했다. 그러면 나머지 은사들은 주셔도 좋고 안주셔도 좋다고 생각 했다.

무사히 달라스에 도착해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

영혼을 알아 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주셨다. 내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셨고, 모든 것을 이겨낼 힘과, 용서할 힘을 주셨다. 나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면담을 마치고 성체 조배를 할 때, 주님은 내 옆에 앉아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러 주셨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상처와 목마름과 슬픔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더 이상 슬픔이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은 내 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창피하게도 다른분들은 조용히 성체 조배를 하고 계신데) 어린 아이와 같이 또 다시 큰 소리로 울고 있었고, 잠시 후에는 알 수 없는 기쁨의 웃음이 터져 나왔다. 주님은 내 가슴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시고, 세상 어떤 것도 걱정되거나 두렵지 않게 해주셨다. 그 순간, 나의 주님께 대한 존경의 마음은 어느덧 사랑이 되어 버렸다. 내 마음 속을 따뜻하고, 포근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것 같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득한 느낌으로 주님은 나를 채우셨다.

그리고 그날 밤, 모두가 모여서 우리 안의 성령과 함께 신령한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주님은 굳어있던 내 혀를 움직이시고, 내 입술을 움직이시고, 내 팔을 잡으셨다. 주체할 수 없이, 끊임 없이 흘러 나오는 신령한 언어의 기도를 들으며, 놀란 나는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갖으시기를 기도했다. 나의 모든 존재가 그분을 찬미하는 그 느낌,말로 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느끼며, 내 이성과 감성이 아닌 나의 영혼이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성령 안의 삶 세미나에 참석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간다. 그 동안 나의 삶에 바뀐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다는 것이다. 성서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출장 가서도 매일 매일 빨리 하루 일과를 마치고 호텔 방에 돌아가서 기도 하고 싶어진다. 저녁 기도를 바치고, 신령한 언어의 기도를 하다



Young Leaders Workshop 마지막 피정을 마치고

워싱턴 인텍스 캐빈에서 2006 년 1 월 26 일 시작된 청년 지도자 워크샵이 2008 년 8 월 2 일 사도 요한의 집에서 열린 10 차를 마지막으로 대장정을 마쳤다. KSC가 주관해 2 년 7 개월 동안 10 회에 걸쳐 계속된 워크샵은 새로 발족한 KSC-Y가 이어가게 된다. 이 창제 부제의 회장 취임과 함께 KSC 중점 사업으로 시작한 청년 지도자 양성과 대학 캠퍼스 네트워킹 형성은 200 명에 가까운 젊은 지도자를 양성하고,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기도회를 개최하고, KSC-Y를 발족시킴으로써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가, 알 수 없는 노래도 나오고, 몸도 들썩거린다.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할 거 같다.) 아침에 눈 뜨면 또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의 기도가 하고 싶고, 왜 이리 눈물은 많아 졌는지 자꾸만 눈물을 글썽인다. 출장가는 비행기를 타고 눈부시게 파란 하늘을 봐도 감사하고, 비행기가 무사하게 이륙한 게 감사하다. 성서를 읽다가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찬양 노래를 듣다가도 가사가 내 얘기 하는 것 같고, 남들이 들으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사랑에 빠졌다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할까.

난 옛날부터 개신교 신자들을 보면 한가지 부러운 것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정 구원설과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설을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이겠지만, 그사람들은 이미 구원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았다.

반면 우리 가톨릭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곳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삶 안에서 실천하며 티내지 않는 수도자 같은 모습이라고나 할까, 아름다운 겸손의 모

작은 나눔 큰 기쁨

**여러분을 KSC 후원회에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익명	타코마	\$1,000.00
익명	뉴저지	\$1,000.00
황막달레나	오스틴	\$500.00
익명	신시네티	\$300.00
임테레사	캘거리	\$100.00
김 안젤라	타코마	\$100.00

**여러분의 작은 나눔을
기다립니다.**

**체크 보내실 곳은
130 67th Ave E
Fife, WA 98424**

습은 가지고 있지만, 뜨거운 신앙 생활의, 사랑의 기쁨은 느끼기 어려웠던 것 같고 (나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에게겐 언제나 한 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성령 세미나를 통해 주님을 체험하고 사랑하게 되면서, 우리 가톨릭 신앙 안에서 이런 사랑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에서 읽었던 글이 마음에 와 닿는다. 한 어린 소년이 하늘 높이 연을 날리고 있었다. 그런데, 곧 나지막이 떠다니던 구름이 그 연을 에워싸 시야에서 연을 가려 버렸다.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그 소년에게 손에 그 줄을 쥐고 뭘 하느냐고 물었다. "연 날려요."하고 소년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으나 눈에 보이는 것은 구름 뿐이었다. "애야, 저 위에 연이라고는 안 보이는데 어째서 넌 연이 있다고 믿을 수 있니?" 그 아이가 대답했다. "제게도 안 보여요. 하지만 저 위에 있다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이따금씩 줄이 약하게 당겨질 때가 있거든요."

성령을 통해 오늘도 활동하시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의 삶 세미나에서 수고하신 봉사자님들 감사합니다. 모든것에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것 없는 저이지만, 제 삶으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